



다승 1위 ‘숫아라’ 소사

〈7승〉

3일간 꿀맛 휴식 KIA 쌍둥이와 주말 홈 3연전

김주찬이 온다... 호랑이, 6월 대반격 예고

SK와 2군경기에 출전

이상 없으면 1군 등록



뜨거운 6월을 위해 김주찬이 온다. 휴식기를 보낸 ‘호랑이 군단’이 6월 재반격에 나선다. 김주찬이 핵심이다.

손목 골절로 재활을 해왔던 김주찬은 31일 함평에서 열리는 SK와의 2군 경기에 출전한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된다.

팀 분위기 전환과 기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또 김주찬의 의지가 강하다. 대주자와 대수비로 뛰면서 팀 전력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밝히면서 김주찬의 복귀가 가시화됐다.

김주찬의 복귀 D-데이는 6월 10일이였다. 10일을 전후로 해 타격 상태가 복귀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었지만 빠른 발과 수비에 조짐이 맞춰지면서 1군 합류 시점이 앞당겨졌다.

김주찬은 지난 29일 라이브 배팅까지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4월 3일 부상을 당한 이후 두달 가량의 공백이 있는 만큼 완벽한 타격은 아니지만 주루와 수비에는 이상이 없다. 일단은 대주자와 대수비가 김주찬의 역할이다.

부상으로 인한 엔트리 변동도 있다. 안방마님 김상훈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김주찬

재활군 신세가 되면서 포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이성우가 어깨가 좋지 않은 만큼 ‘루키’ 이흥구가 입단 후 첫 1군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

6월 대반격을 위한 투수 로테이션 조정

도 있다.

KIA는 화려했던 4월을 뒤로하고 타선의 하락세와 부상 속에 5월 뒤통수를 맞았다. 타선의 침체 속에 선발진의 난조까지 겹치면서 선두권 싸움에서도 멀어졌다.

부상과 WBC 참가로 완벽하게 동계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김진우·윤석민·서재응이 기복을 보이면서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휴식기를 보내며 선발진을 가다듬은 KIA는 31일 무등 경기장에서 열린 LG와의 홈경기에 가장 먼저 소사를 출격시킨다.

지난주 양현종을 시작으로 윤석민-소사-서재응-김진우로 선발 로테이션이 이어졌지만 윤석민 대신 소사가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주말에는 윤석민과 양현종이 나란히 출격해 승률 쟁기에 나서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다.

소사에게는 LG전 3연승과 시즌 7승도 전이다.

경기 초반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5.1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소사지만 LG전 두 차례 선발에서는 3.00의 방어율로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 17일 잠실에서 벌어진 LG전에서도 6.1이닝 2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5승째를 챙겼다.

올 시즌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럭키 가이’ 소사가 5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황선홍·최순호...‘K리그 레전드 베스트11’ 선정

6월 11일 올스타전

K리그 30년을 빛낸 최고의 선수가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이 30일 ‘K리그 30주년 레전드 베스트11’을 최종 발표했다.

K리그를 빛낸 레전드에는 황선홍·최순호(이상 공격수), 유상철·김주성·서정원·신태웅(이상 미드필더), 홍명보·김태영·최창환·

박경훈(이상 수비수), 신의손(골키퍼)이 선정됐다.

K리그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투표는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은퇴선수 가운데 수상기록, 개인기록, 공헌도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축구팬과 현역 코칭스태프 등 축구인, 언론 관계자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했다.

팬 30%, 축구인 40%, 언론 30%의 비율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최종 선수가 선발됐다.

K리그 30년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 베스트11’에게는 오는 6월 20일 열리는 ‘K리그 30주년 기념 리셉션 및 비전 발표회’에서 이를 축하하는 기념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들은 또 6월 21일 ‘K리그 30주년 기념



홍명보



황선홍

K리그 올스타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9경기 무패’ 도전

내일 서울과 K리그 클래식 14R ... 챌린지 광주 FC는 수원과 한판

광주 FC가 진격의 6월을 준비한다.

광주 FC가 2주간의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6월 1일 오후 7시 수원 FC의 안방인 수원종합운동장을 찾는다.

5월 한달 2승2무를 기록한 광주는 이번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경기를 통해 무패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설욕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4월 맞대결에서 수원에 3-4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었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광주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수비 조직력이다.

광주는 휴식기 동안 빠르고 기습이 좋은 상대 공격수들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에 공을 들였다. 상대의 일격을 막기 위한 수비진의 특별 훈련이 진행됐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플레이와 조직력 향상에 무게를 둔 훈련은 연습경기에서 빛을 발했다. 공격진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통한 시너지 효과도 드러났다.

유종현의 공백을 메울 여범규 감독의 용병술이 관전 포인트다. 노련한 박병주의 부상 이후 2주 연속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던 수비수 유종현마저 경고누적으로 수원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상승세의 김은선과 투시오는 허리와 공격의 핵심이다. 김은선은 부상에서 복귀 후 중원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의 패스 차단을 물론 안정적

인 볼 배급과 득점력으로 공격에도 힘을 보태면서 광주의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클래식 무대에서도 통했던 투시오의 실력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고 김준엽, 임선영, 박정민 등도 과감한 슈팅을 날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 특유의 전투 본능도 꿈틀대고 있다. 광주는 리그와 FA컵 등 최근 3경기에서 끈질긴 승부로 ‘질’ 경기를 비기고, 비질 경기를 이기는 ‘반전쇼’를 펼쳤다.

광주의 필승전략은 친정팀 상대에 나설 장신 공격수 보그단, 수원의 창 박종찬 차단과 강력한 중원싸움이다.

전남 드래곤즈도 FC 서울을 상대로 무패 기록을 ‘9’로 늘리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6월 1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 14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전남은 베테랑 김병지를 앞세워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무실점의 완벽 수비를 선보였다. 지난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도 선방쇼를 펼치며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수원전 후반 41분 터진 박준태의 골로 극적인 1-0 승리를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3승5무)를 기록한 전남. 패기와 경험이 맞물리면서 무패 행진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효천고·동성고 4강 도전

주말리그 왕중왕전

순천 효천고와 동성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4강에 도전한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 제67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8강 경기가 오는 6월 1·2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다.

순천 효천고는 1일 오전 10시30분 경기고와 4강 진출을 다툰다. 동성고는 2일 오후 2시30분 경북고와 4강 티켓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덕수고와 복일고(1일 오후 2시30분) 인천고와 마산고(2일 오전 10시30분)도 준결승을 향한 승부를 펼친다. 한편 2일 동성고의 경기는 대회 주관방송사인 채널 A에서 생중계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바논을 잡아라”

6월 5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레바논과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6차전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전지훈련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이 29일(현지시간) 두바이 더세븐스 스타디움에서 첫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